



### 삼국유사인문학여행(遊行)

‘홍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삼국유사’에는 민족의 DNA가 담겼다

#### 1. ‘홍법’의 함의

불교 또는 불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붓다 입멸 후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人]에 의지하지 말고 법[法]에 의지할 것이며, 밖으로 드러난 말[語]에 의지하지 말고 그 말에 담긴 뜻[義]에 의지할 것이며, 언어를 매개로 한 상대적 인식[識]에 의지하지 말고 통찰의 직관[智]에 의지할 것이며, 그 뜻이 애매하거나 불신한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경(了義經)에 의지하라.” 이 ‘네 가지 의지해야 할[四依] 법문’은 이후 경전 해석의 근간이 됐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다. 즉 법에 의지한다면 셀 수 없는 법문 중 무엇을 법이라 할 것인가? 뜻에 의지한다면 붓다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담긴 별도의 것인가? 요의(구구적 진리)와 불요의(방편적 진리)의 변별 기준은 무엇인가?

불교 전통에서는 불설(혹은 불교)과 불법(혹은 聖教, 阿舍)을 구분해 왔다. 불설 또는 불교가 붓다의 말씀이라면 붓다가 직접 설한 것만이 불설인가? 아니면 전승된 모든 불설을 곧 붓다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가? 해야 할 수 없는 많은 경전 가운데 붓다의 참된 가르침은 어느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는가? (대만발원경)에서 설해진 ‘네 가지 위대한 교설’에서는 “경에 포함돼 있고 율을 드러내면 불설이다”고 했다. 이것은 이후 사의(四依)설과 결부되면서 “경에 포함돼 있고 율을 드러내며, 법성(法性)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불설이다”로 바뀌었다. 나아가 경설의 요의인 ‘법성’만이 강조되기도 했다. 경부(經部)의 세전을 통괄해 비판했던 유부(有部)의 중현(衆賢)에게 있어 요의설과 불요의설의 판단기준은 ‘법성’이었다. 법성은 ‘모든 존재의 진실성[諸法眞實性相]’이자 올바른 이치에 의해 입증된 진실이었으며 그것은 아비달마였다. 그리고 대승의 불설론 역시 유부 불설론의 환골탈태와 다름 없었다.

전통불교서는 불설과 불법 구분했지만

대승불교서는 법성 위배되지 않음 불설

(삼국유사)에서는 ‘불교’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불법(佛法)’ ‘교법(教法)’ ‘대교(大教)’ ‘법륜(法輪)’ ‘석사(釋祀)’ ‘석풍(釋風)’ ‘석씨(釋氏)’ 등을 혼용하고 있다. 이들 용어들은 모두 ‘홍법’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법’은 겨우 7조목만을 묶었지만 (삼국유사) 5권 9편 중 대단히 중요한 편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홍법’ 편 이외 편명에 불교와 관련되지 않은 편목은 없다. 이 서책에서 불교 기사가 없는 편목은 없다. 그러나 ‘홍법’ 편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와 관련 정보가 여타 사서에 견주어 집중돼 있으며 자세히 기술돼 있다. 일연은 ‘불법을 일으킨다[興法]’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편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순도와 난타, 아도와 염족과 원종을 기리는 찬(讚)시에 투영된 그의 인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연은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불교 전래와 수용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아쉽게도 ‘유통’ 편 일부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어서 해동의 불교사를 온전히 재구하기 어렵다. 반면 ‘홍법’ 편은 삼국의 불교 전래와 수용 및 삼국 불교의 특징이 투영돼 있어 이땅의 초기 불교사의 지형도를 어느 정도나마 그려낼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 왕실의 적극적 불교 수용과 지원과 달리 신라는 전법승들에 의해 맨땅에서 시작됐다. 이차돈의 ‘순교’와 범종왕의 ‘사신(捨身)’은 홍법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진리를 위해 자신을 버린 이들이

다. 일연은 이들을 ‘원종의 흥법’과 ‘염족의 멸신’으로 표현했다. 그는 신라의 흥법 뿐만 아니라 백제의 범왕이 살생을 금하는 교지를 내리며 흥법을 도모한 사례를 적고 있다. 나아가 고구려의 고승 보덕이 좌도(左道, 道教)의 용성을 경계하며 흥법을 위한 수차례의 주청과 안산주로의 방장(방자) 이동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 2. ‘홍법’ 편 지위

<삼국유사>는 5권 9편 138조목으로 된 민족의 경전이다. 일연은 아홉의 편목을 시설하면서 중국의 삼대 고승전의 체제를 원용해 장발적으로 변용했다. 또 각훈의 <해동고승전>의 체제와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체제를 적용해 독자적으로 응용했다. 또 종래의 여러 ‘유사(遺事)’ 류의 사서들로부터 ‘유사’라는 제명을 따오면서 또 새로운 ‘유사’의 형식을 장안해 이후 ‘유사’ 류 체제의 모범을 확립했다. 최근에 간행된 고려의 빠진 이야기들을 담은 <고려유사>와 <조선왕조실록>에 빠진 이야기를 모은 <조선유사>도 모두 <삼국유사>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판본은 대개 두 책(혹은 세 책)으로 분책돼 유통됐다. 상책은 권1~2까지를 묶었고, 하책은 권3~5까지를 묶었다. 그런데 하책의 첫 편목인 ‘홍법’은 ‘왕력’ ‘기이’ ‘홍법’ ‘탐상’ ‘의해’ ‘신주’ ‘감동’ ‘피은’ ‘효선’ 등으로 이어지는 아홉 편명 가운데 이 서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

이들 편명 ‘왕력’(권1)이 신라와 고구려 및 백제와 가야 그리고 후고구려와 후백제에 대한 간략한 연표를 기술한 것이라면, ‘기이’(권1-2)는 고조선 이래 후삼국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단편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홍법’(권3)이 삼국의 불교 전래와 수용 및 번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면, ‘탐상’(권3)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불탑과 불상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의해’(권4)가 신라 고승들의 살림살이와 사교방식을 전기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신주’(권5)는 신라 밀교승들의 신이행에 대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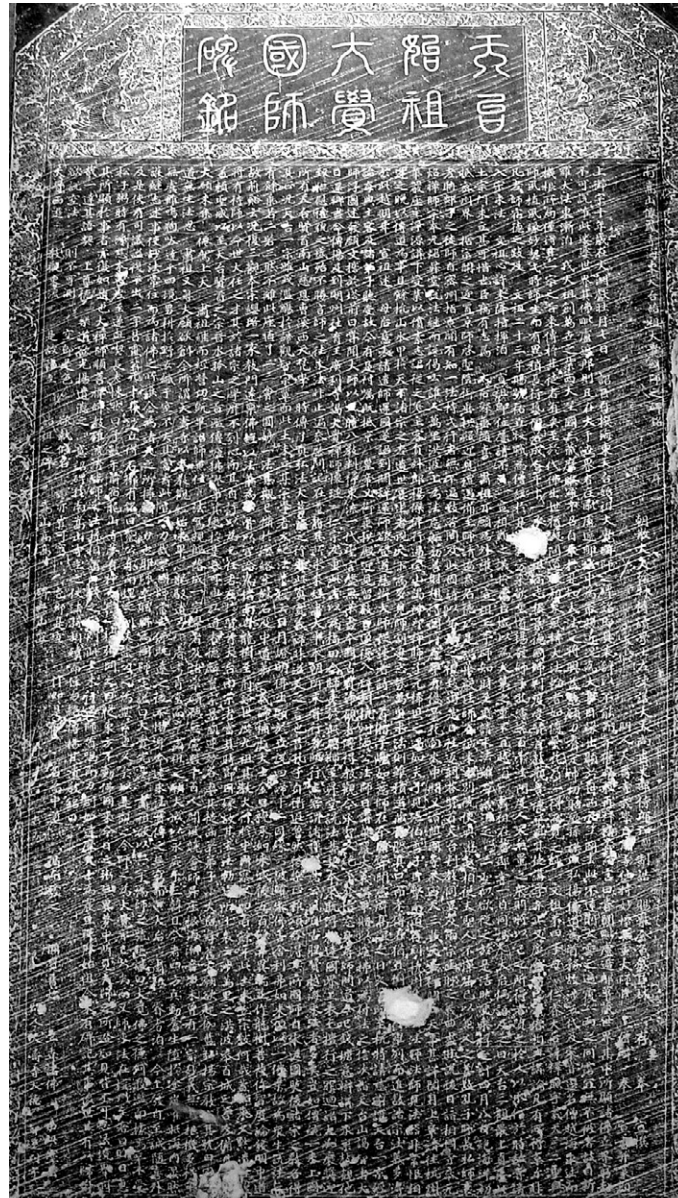
‘홍법’ 편 <삼국유사> 정체성 가장 잘 표현

삼국 국왕의 불교수용 과정 등 담고 있어

술하고 있다. ‘감동’(권5)이 지극하면 통하는 신앙의 기이와 영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면, ‘피은’(권5)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피한 숨은 일사(逸士)의 살림살이를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의 ‘효선’(권5)은 부모에 대한 효행이 불교적 선행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노모를 모시는 자신의 심정을 실어 보여주고 있다.

‘홍법’ 편이 이 서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먼저 저자 일연의 신분이 불승(佛僧)이라는 점, 이 서책이 종래의 일반사 중심의 사서인 <삼국사기>와 달리 불교사 중심의 사서라는 점, 이 편목이 ‘분기’와 다른 ‘기이’에 대응하는 분기의 첫 편이자 삼국 국왕들의 불교 수용과정을 담아냄으로써 불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서 ‘홍법’ 편은 남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을 일으킨다[興法]’는 것은 불교의 연기·무자성·공성·자비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이다. 소박한 업적을 원용해 대중들에게 다가왔던 불교는 점차 무상·고·무아·열반 등 불교의 본의(本義)를 전하면서 이 땅의 중심부에 정착해 갔다.

일연은 <삼국유사>라는 이름 아래 우리 조상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이상을 담아내려고 했다. 그는 종래의 사서가 이 땅 사람들의 맛과 멋과 한 그리고 그들의 필멸 삶아 뛰는 온기를 배제하고 지나치게 건조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이 있었다. 그것은 ‘세 나라의 빠진 이야기’, ‘세 나라의 잃어버린 이야기’라는



불교 전래 후 산스크리트어 등의 영향이 금석문에도 남아 있다.

제명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면 무엇이 빠지고 잃어버린 이야기일까? 일연은 그것을 불교적 우주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갈파했다. 해서 그는 이 땅에서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잃어내려고 했다. 일연은 그들의 의식의 씨앗 속에서 어떤 싹들이 발아했는가를 소상히 관찰하고자 헌신했다. 결국 그는 전란 이후 몽골이 간섭하는 시기에 살면서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삼국 사람들의 종자의식을 탐색해 이 땅에 다시 현행시키는데 성공했다.

#### 3. 한국불교의 토착화 과정

불교의 전래는 이땅과 사람들을 크게 변화시켰다. 불교적 우주관과 세계관 및 인간관과 자연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전통적 하위관념이 변화했다. 일연은 이 땅의 하느님[桓因]을 33천인 선전천의 선건성을 비롯한 사방의 32천을 다스리는 제석(帝釋)으로 비정해 불법을 보호하는 호법중(護法衆)으로 자리매김시켰다. 그 위에 불교의 언어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붓다가 사용했던 하이브리드(혼성) 산스크리트(범어)와 속어인 마가다어와 뿌라끄리피어 등 인도·유라피안 언어가 이 땅 곳곳에 스며들었다. 현존하는 금석문 등에서 당시 통용됐던 불교 용어들의 다양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의 두 흐름을 나타내는 소승과 대승을 필두로 각종 다라니와 문두루 등 불교문화의 용어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삼국

유사>에는 불교 전래 이후 이 땅에 자리 잡은 여러 개념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동아시아에는 ‘삭발’의 개념이 없었다. 유교 <효경>의 “신체와 머리카락 및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는 가르침의 강력한 영향에 의해 한족(漢族)에게는 삭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머리카락의 일부를 자르고 묶는 번발 등은 이루어졌지만 온전히 자르는 ‘삭발(削髮)’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교가 수용되면서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도 삭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삼국유사>의 아도(阿道) 혹은 아두(阿頭) 또는 사미(沙彌) 등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른 구름 같은 머리를 가진 이’를 통칭하는 보통명사이다. 불교 전래 초기에는 무수한 아도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 <삼국사기> 이차돈의 순교 대목에서 “이런들 스승과 머리를 뺏아 쥐고 요상한 옷을 입고 논의하는 말들은 기이하고 위태로워 상도(常道)에 어긋남니다”라는 신하들의 표현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신하들이 말한 ‘요상한 옷’에 보이는 것처럼 승복은 복식(服飾)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에는 좌의(左袵)와 우의(右袵)가 혼용돼 있다. 때문에 종래 고구려의 여맹새[襜形]가 북방계 호복계통의 좌의이었다가 이후 중국 한복 계통의 영향을 받아 우의로 뒀다는 이 여성의 주장과 우리 복식문화의 원류가 스키타이계 복식문화라는 김문자의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임(衽)은 것이나 옷자락을 여밈을 나타낸다. 불교의 승복도 오른쪽을 여미는 우의형이다. 불경 속의 ‘편단우견(偏袒右肩)’은 ‘왼쪽 어깨에 법의를 걸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표현이다. 즉 자전체 시중을 들겠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의 영향을 받기 전의 신라 고유 복식은 경주 백률사(栢栗寺) 석당기(石幢記)에 양각된 이차돈 순교 당시의 의복이 좋은 사례가 된다. 이후 복식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만 승복(僧服)의 여맹새와 품새 및 소매와 땀기 등은 오늘날의 한

불교 전래 전 동아시아에 ‘삭발’ 개념 없어

승복 한복에도 영향, 육식 관념도 바뀌

복(韓服)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불교의 전래는 육식(肉食)에 대한 반성이 없던 사람들에게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워주었다. 인도의 불교 교단에서 처음부터 육식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사건)를 해소시키기 위해 계목을 제정하는[隨犯隨制] 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현존 남전의 <범망경> 소개(小戒) 중에는 불살생계는 보이지만 불식육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육식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붓다는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었다. 즉 1) 자기 눈으로 죽이는 것을 보지 않고[不見見我殺殺], 2) 자기를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고[不聞聞我殺殺], 3) 자기를 위해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지 않은[不故疑-不疑爲我殺殺] 세 가지 청정한 고기[三種淨肉]는 먹어도 무방하다고 설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에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린 수행자가 자기를 위해서 먹을 때만 용납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선행한 백제 범왕과 신라 법흥왕의 살생 금령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내린 교지였다. 한국불교는 토착화 과정에서 불교의 지혜를 발취해 의식주 뿐만 아니라 우주관과 세계관 및 인간관과 자연관 그리고 내세관과 수행관 등이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줬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히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아 역학입니다 -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평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대한불교일월출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사단 대 한 불 교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추명사 서울포교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68-24 (지하철 5호선 화곡역 7번출구) 휴대폰 010-9217-2237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2부를 시청하세요.

####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필적서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